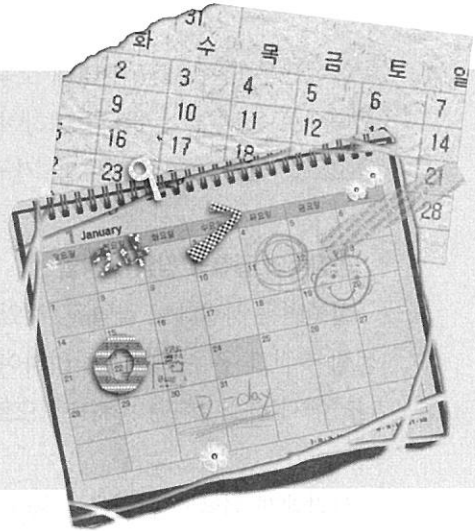


# 12 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태일, 박성민, 백광수, 최순호)



## 일반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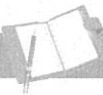
**겨울** 스타인 품종은 일반적으로 더위보다는 추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절은 젖소에겐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소화기 질병의 발생이 다발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수온조절이 가능한 가온급수기나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급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저온 환경 하에서 젖소는 체온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데 기온이 1°C 내려가면 소화율은 평균 0.2% 감소하게 되며, 우유생산 목적 외에 체온 유지를 위한 체열을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주 심한 저온조건에서는 젖소가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 대량의 에너지가 체열의 생산에 사용됨으로 산유량은 저하하고 체력의 소모가 증가된다. 이러한 심한 저온이 계속되어 젖소의 적응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고 대사, 호흡기능이 장애를 받아 심하면 폐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에너지 등 추가적인 영양소 공급을 위해 10~15%의 사료 증량이 필요하다. 또한 착유실과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실내사육으로 인한 축사 공기 오염을 예방하는 환기 전략 수립 등 축사관리와 환경개선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번식관리

**겨울** 철에는 젖소의 관리가 대부분 축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사 내의 환기 및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만예정우는 별도의 깨끗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깔짚

등을 충분히 깔아주어 분만 후 외기온도로 인해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송아지와 육성우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셋바람이 들지 않도록 조치해준다. 번식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발정관찰인데, 겨울철은 활동량의 감소와 미약발정축의 발생 증가로 발정관찰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계절이다. 따라서 반드시 농가 실정에 맞는 발정관찰 보조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관행적인 발정관찰시에는 반드시 직접 축사 내부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여야 발정 관찰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태우에 대해서는 발정을 인위적으로 유기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가을철의 서늘한 계절에 송아지를 분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 방역 및 위생관리

**갓** 태어난 송아지의 체온은 39℃ 내외인데 피부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감기 예방을 위해 마른 수건이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빨리 점액을 제거하여 피부를 건조 시키고 실내온도를 2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송아지 설사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급성으로 많이 발생하며 감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균으로는 로타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등이다. 치료제는 주로 항생제를 사용하며 설사가 시작되기 전에 투약하고 탈수 중에는 링거액, 전해질, 간기능 강화제, 지사제 등을 주사하거나 먹이며, 어미소의 혈액 수혈도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착유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착유가 끝난 다음 유두침지를 한 상태에서 외기의 낮은 환경에 접할 경우 유두가 얼어 동상이 걸리기 쉽다. 또한 축사바닥이 저저분하게 젖어있는 경우 동상은 더 쉽게 걸리게 된다. 따라서 착유한 다음 유두침지 후 침지액이 마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진 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축사바닥은 건조한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직풍에 의한 유두동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

